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용성 스님 (4)

용성 스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고?

창수 수좌,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

용성 스님, 그렇다. 그렇다.

창수(昌洙) 수좌가 망월사에서 용성 조실께 삼배를 드리고 꿇어앉아 마자, 용성 스님이 물었다. "십마물(什麼物) 임마래(怎麼來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고?" 하는 물음이다.

이에 창수 수좌는 주먹을 불쑥 내밀며 아뢰었다.

"임마물(怎麼物)이 여시래(怎麼來)이다."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는 대답이다.

용성 스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여시여시(如是如是)나라."

'그렇다 그렇다' 하는 긍정의 표현이다.

잠시 후, 용성 스님은 붓을 당겨 창수 수좌에게 인곡당(仁谷堂)이라는 법호와 함께 '인곡당 창수 장살에 보인(示 仁谷堂昌洙 丈室)'이란 전법계를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써내렸다.

"어진 마음이 천지를 감싸안으니(人心植天地) / 길은 골짜기 또한 밝고 밝도다(玄谷又明明) / 온갖 조화가 이에서 일어나니(造化從斯起) / 영원토록 생멸하지 않도다(亘古不生滅)."

인곡(1895~1961년) 스님은 23세에 사교인선(捨教入禪)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자(無字) 화두와 씨름한 지 9년만에 용성 스님의 인가를 받고 입십제자(入室弟子)가 된 것이다.

위 문답에서 용성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고?" 한 질문은 육조혜능 스님이 남악회양 스님에게 던진 공안과 같다.

이 질문에 회양 스님은 "철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여 인가를 받았고, 인곡 스님은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답하여 인가를 받았다.

회양 스님과 인곡 스님의 대답은 서로 다름에도 똑같이 인가를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 뭣고?" 화두의 대상인 '한 물건(-物)'은 시간과 공간, 생과 사를 초월한 '그 무엇(거시기)'이기에 뭐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맞지 않지만, 이름 붙이지 않고 쓴다(作用면 또한 '거시기' 아닌 적이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보고 듣고 쓰 는 그 모든 것이 '거시기'이지만, 깨닫지 못한 이에게는 '그 무엇'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 것이다.

모기 주둥이처럼 공안에 들이대는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한 물건'에 대한 용성 스님의 법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있는 힘껏 참구해보자.

"이 물건은 육근(六根)으로 이뤄진(構成) 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없이 항상 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상관 없이 항상 있으며, 공(空)하고 공하지 않은 것에 상관 없이 항상 있다. 허공은 없어져도 이 물건은 없어지지 않는다. 밝은 것은 무량한 일월로도 비준할 수 없고, 검은 것은 칠통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참으로 크도다. 천지세계와 허공을 다 삼켜도 삼킨 곳이 없다. 참으로 작은 것이다. 가는 티끌에 들어갔으며, 공 티끌 속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고 단지 의심하여 불지이다."(수심정보)

김성우 객원기자

도심 선원에 재가 '수행bum' 일으킨다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 하안거 결제 맞아 정진 '고삐'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좌), 용상방을 작성하는 결제 대중들.



"이와 같이 능히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또렷이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

불기 2551년 하안거 결제일인 5월 31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 5백여 사부대중이 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결제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1000일 후 해제 때는 분명히 보고 들을 줄 아는 이 '한 물건'에 대해 대답하는 대중이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다시는 이 주지가 법석에 올라 이런 질문을 못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 날은 수좌 출신의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로 부임한 뒤 중창불사 1000일기도 정진에 들어간 지 178일째 되는 날. 그동안 봉은사는 서울 강남의 조계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강남의 불교문화포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선종 수(守)사찰'

이란 이름에 걸맞는 선풍(禪風)을 드날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명진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사찰 수행풍토가 크게 바뀌고 있다. 지난 해 3월 21일부터 석 달간 열린 월안 스님(역송사 선원장)의 '간화정로(看話正路) - 간화선을 말한다' 주제의 참선법회에 연인원 40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선(禪)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봉은사에서 첫 하안거를 맞는 명진 스님이 '이뭣고 화두'를 주제로 결제법문을 하면서 더욱 정진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특히 이날 하안거 결제법회가 끝난 후 봉은사의 고요한 경내에 자리 잡은 봉은선원에서는 선감(禪監) 성록(성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선원 대중들이 헌관식을 갖고 하안거 결제를 맞는 각오를 다졌다. 봉은사에 시민선원에 문을 연 것은 지난 2003년 11월, 지난 해 10월에는 시민선원을 확대한 수원원이 문을 열었지만 '봉은선원'이란 명칭이래 좀 더 체계적인 재가 선원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결제 첫날을 맞은 봉은선원은 새로 방부를 들이는 몇몇 불자들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며칠 동안 6명의 불자가 새로 입방을 신청해서 결제 대중은 모두 58명이 되었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미 몇 달간의 정진을 이어온 불자들이기에, 이날 방부를 들인 회원들은 선감실에서 면담을 해야 했다.

"거사님, 법명은 무엇이었지요?"

"무여(60)라고 합니다."

"거사님, 듣고 계신 화두는 있습니까?"

"아직 마땅한 화두가 없습니다."

"거사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니, 오늘은 특별히 주지스님이 직접 화두 간택(簡擇)을 하시도록 따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심과 묵언·화합 '명심'

선감 스님은 새로 방부를 들인 한 가사를 면담하면서 봉은선원의 청규(淸規)도 자세히 일러준다. "하심과 묵언을 원칙적으로 하며 큰방에 단 한명이라도 정진중이면 복도나 각 방에서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파트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를 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홍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수행개시판

- 무비 스님 '서장' 대강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은 6월 20일~2008년 3월 19일, 매월 셋째 수 저녁 7시~9시 30분(총 10회) '무비 큰스님의 (서장(書狀)) 대강좌'를 연다. (02)2011-1735
- 좌선외 강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6월 13일~9월 19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9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좌선외(坐禪外) 강의를 진행한다. (02)611-6070
- 우 소다나 사야도 초청 집중수행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은 우 소다나 사야도(만마)마하시 수행센터의 지도 아래 6월 23~29일 우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좌선, 행선, 일상관찰수행과 면담 등으로 진행. (033)644-1686
- 아내나사때 집중수행 =남양주시 봉인사는 6월 14~18일 4박5일간 김열권 법사 지도로 '우빠사나 및 아내나사때(부처님 호화법)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031)574-5585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산촌은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는 야생초인 신선한 야채와 산나물을 사용하여 식도락을 찾는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찰음식전문점 村山

동산불교대학 사찰음식학과장 정산 합장
 인사동 본점 02)735-0312 / 경기 고양점 031)969-9865
 www.sanchon.com

강화도 전등사 불교 전통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 안에 자리 잡은 현존 最古 사찰 전등사는 향몽의 성지이며 병인양요 당시에는 프랑스 군과 격전을 벌인 호국 근분도량입니다. 이렇듯 유서 깊은 전등사에서 2007년도 여름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수행을 겸하는 뜻 깊은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

차	기간	모집인원	대상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비용
1	7월 2일 ~ 7월 5일(3박 4일)	20명	일반인	전통예절 및 다도	15만원
2	7월 9일 ~ 7월 12일(3박 4일)	20명	일반인	한지공예	20만원
3	7월 16일 ~ 7월 19일(3박 4일)	20명	일반인	서각 및 인경	20만원
4	7월 23일 ~ 7월 26일(3박 4일)	20명	일반인	단청	20만원
5	7월 30일 ~ 8월 2일(3박 4일)	20명	중고생	전통예절 다도/ 단청	15만원
6	8월 6일 ~ 8월 9일(3박 4일)	20명	일반인	생태교실	15만원
7	8월 13일 ~ 8월 16일(3박 4일)	20명	일반인	천연염색	20만원

모집요강

1. 모집 시기 : 2007년 6월 4일 ~ 각 프로그램 전
2. 모집 인원 : 각 20명 (선착순)
3. 모집 기준 : 전화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은 예약이 되는 것이며 아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입금 순서로 선착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입금 시 유의 사항 : 입금할 때는 참가 기수와 성명을 함께 적어주시고 전화를 바랍니다.
5. 불참 시에는 각 차수 프로그램 일정 일주일 전까지 전화를 주시면 환불해 드리고, 6일 전 부터는 보시금으로 접수됩니다.
6. 자원봉사자 모집 : 각 차별 5명 모집

계좌번호 농협 171845-51-006378 (예금주 : 전등사)

대한불교조계종 강화도 전등사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은수리 635 전화 032)937-0025, 0125 / 팩스 032)937-5450